장항송림산림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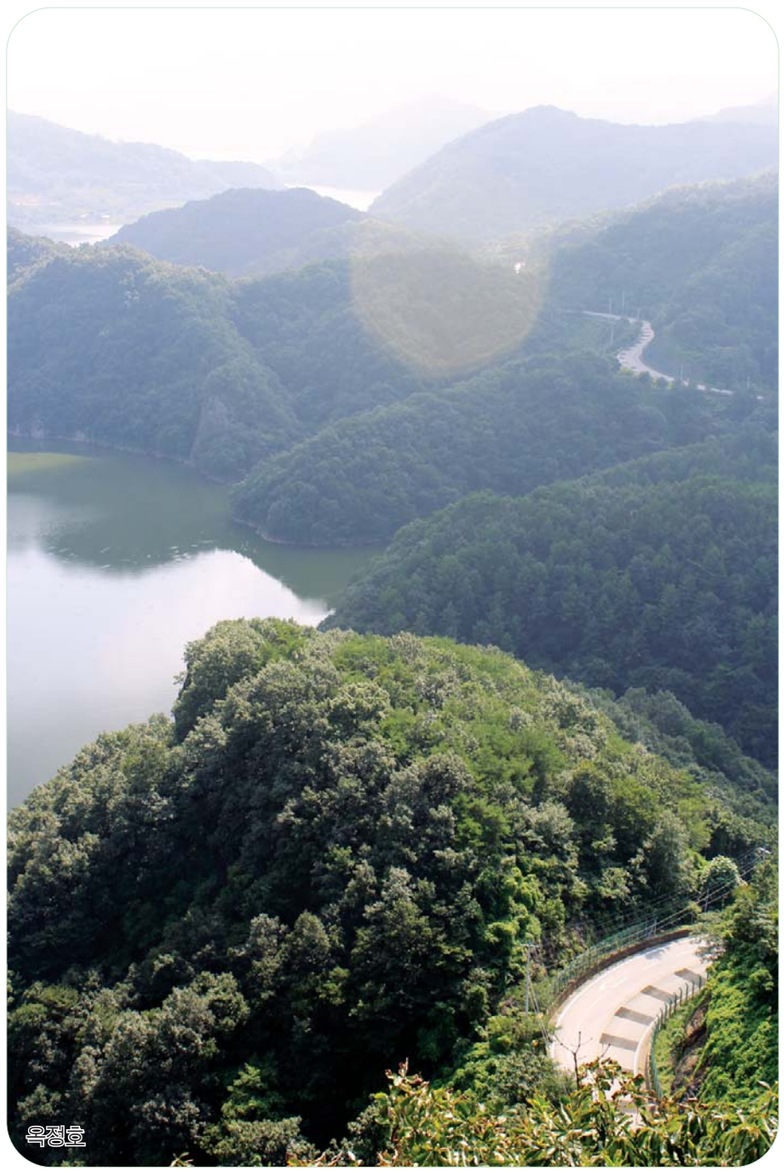
전주 한옥마을

여수 돌산대교

■ 9월 '마음을 채우는 여행길'

쭉쭉 뻗어나가는 고속도로를 살짝 비켜나 달리는 길.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풍경은 그윽한 낭만을 준다. '구불구불 신나는 국도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9월의 여행, '마음을 채우는 여행길'을 소개한다.

국도의 여유, 포근한 풍경 속으로


옥정호

◇4번 국도,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산림욕도 즐기자

충남 부여와 서천을 잇는 4번 국도는 역사 유적탐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충남 서천 장항읍에서 시작해 부여와 논산, 경북 칠곡, 영천을 지나 경주시 감포읍에 닿는 4번 국도의 길이는 약 370km. 이 가운데 부여와 서천을 잇는 구간은 유서깊은 백제의 역사 유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도 아름답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에서는 부소산성과 정림사지5층석탑, 궁남지 등을 돌아본다. 부소산성에서는 기분좋은 가을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정림사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백제탑을 볼 수 있다.

궁남지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을 상상해보자. 아이들과 함께라면 국립부여박물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보는 건 어떨까. 시원한 강바람이 무더위를 식혀줄 것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능산리 고분군이나 무량사를 함께 돌아보는 것도 더욱 알찬 여행을 만드는 한 방법이다.

서천에서는 지친 몸을 쉬게 할 휴양림이 기다린다. 희리산해송휴양림은 사철 푸른 해송으로만 이뤄진 휴양림. 피톤티드향 가득한 숲속을 걷다보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모래찜질로 유명한 장항송림산림욕장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우리네 멋과 전통, 예술이 흐르는 27번 국도-전라북도 전주, 완주, 임실

27번 국도엔 우리 전통의 멋과 예술 그리고 보는 이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풍광이 조화롭다.

길위의 명소들이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다. 이 멋을 잠시 느껴보라고, 이 풍광을 잠시 누리다 가라고.

군산에서 전주, 완주, 임실, 순창을 지나 곡성, 순천, 고흥을 잇는 도로가 27번 국도다. 전주의 서쪽에서 들어와 호남제일문을 지나고, 시내를 관통한 뒤 활처럼 휘어져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 길에서 쉬어 갈 곳은 당연히 덕진공원과 한옥마을이다.

연잎 뒤덮인 덕진공원은 화려한 연꽃 뒤에 오는 열매의 결실을 보게 하고, 옛 멋 그윽한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어 흐뭇하다.

모악산자락의 새로운 명물 전북도립미술관은 행복충전소로 충분하고, 안덕마을은 도시의 공해에 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옥정호반을 따라가는 구불구불 드라이브는 편리한 직선보다 아름다운 곡선이 있어 삶이 더 풍성해 진다는 걸 일깨운다. 흥겨운 장단이 울리는 필봉문화촌엔 우리네 전통을 이어가려는 젊은이들의 땀방울이 빛난다.

◇산 따라 물 따라 서정이 흐르는 길, 진주~하동 2번 국도

진주와 하동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은 남해고속도로다. 속도와 효율을 생각한다면 편리한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둘러가는 2번 국도에 굳이 눈길을 주는 건 그 길에 서정과 여유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굽어보며 묵묵히 서 있는 진주성은 진주의 상징이자 진주 시민의 자랑이다.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진양호에서 바라본 노을은 황홀하기 그지없다.

진주를 벗어나 사천시 곤명면으로 들어선 후 58번 지방도로로 슬쩍 빠지면 봉명산 다솔사에 이른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곳이다.

2번 국도 진주~하동 여행의 종착지는 하동읍. 섬진강을 곁에 둔 송림 끝자락에 경전선 섬진강철교가 있고, 강 건너편은 광양 땅이다. 2번 국도는 섬진강 건너 광양으로 이어진다.

◇바다로 미래로 여수로 가는 길, 17번 국도

17번 국도가 시작되는 여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다.

이순신장군이 호령하던 과거의 바다, 현재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과 소호요트장,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이 그 역사를 말해준다.

이 모든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벽화골목도 있다. 여수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고소동천사벽화골목이다.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했던 1893년의 시카고세계박람회에서부터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까지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한창 준비 중인 박람회장을 보고 싶다면 2012여수세계박람회홍보관으로 가면된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미래의 바다가 현실로 다가오는 공간이다. 완성된 전시관에 담길 전시내용을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벽화골목

유적탐방과 휴양을 동시에, 충남 부여~서천 '4번 국도'

전통과 예술 그리고 풍광, 전주·완주·임실 '27번 국도'

보기만 해도 서정이 물씬 묻어나는 진주~하동 '2번 국도'

미래의 바다가 현실로… 여수 가는 길 '17번 국도'